

아름다운 양주의 바이엘 대리점 동산가축약품

취재/홍보실 김익겸



양주지역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나 김삿갓으로 더 잘 알려진 김병연 같은 학자와 시인들이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고인돌이나 원시 주거지 같은 선사시대의 유적들로부터 전쟁통에 세워진 기념비같은 갖가지 역사의 유적이 솔하게 깔려 있어 강화군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가장 넉넉한 유형문화재를 지닌 곳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옛 흔적을 더듬어나가 그 모습을 되살리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중 하난 양주 별산대 놀이로서 지금의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는 조선 시대에 양주목이 자리잡았던 곳으로서 옛양주군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이 마을은 한강 북부에서 가장 큰 고을의 하나로 손꼽혔는데, 조선 중기 무렵부터 해마다 주로 사월 초파일과 오월 단오에 서울 사직골 '딱딱이때'를 불러들여 산대 놀이를 벌였다. 그러다가 을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딱딱이때에게서 놀이와 가면 만드는 법을 배워 스스로 놀이를 하게 된 뒤로 이 놀이가 아예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별산대 놀이는 6·25 전쟁통에 탈과 옷, 도구가 모두 불에 타 버리고 놀이를 아는 사람들도 흩어져 버리다시피되어 그 맥이 끊길뻔 했으나 이곳 사람인 김성대 씨와 몇몇 사람이 모여 놀이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여지껏 이어 내려오고 있다.

서울 북쪽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양주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동산가축약품을 찾았다. 동산가축약품의 박성현 대표는 서울 태생으로 서울 거여동에서 부모님이 양계사업을 하시면서 축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78년 동산가축약품에 입사하면서 동약 업계에 입문하여 91년 동산가축약품을 직원으로 인수하였다. 박성현 대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숲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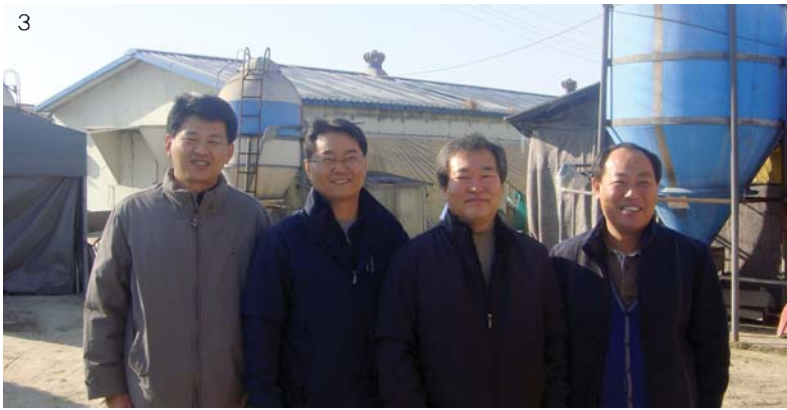




2

1. 동산기축약품
 주소 : 양주군 남면 상수리 165-14
 전화 : (031)836-6463,8542~3
 팩스 : (031)836-8544

2. 동산기축약품의 바이엘맨들 사진
 좌로부터 윤재석 과장, 김태홍 부장, 민승기 차장, 이건우 상무, 경리 이미영씨, 바이엘 지역담당 정운석 주임, 지구부장 정수근 부장.



3

3. 제일농장
 대한 양돈협회 양주지부장인 김행우 대표가 운영하는 1,800두 규모의 양돈장으로 생산량 극대화를 위해 동산기축약품과 연계하여 각종 질병 대책 프로그램 등을 컨설팅 받고 있다고 한다.
 주소: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770번지
 전화: 016-248-9675



4

4. 애오개(아현동), 가든돌, 사직동 등지의 것을 본산대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전승되는 탈놀이음을 별산대라고 부른다. 양주 별산대는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 양주시립 이을축이 서울 사직골 딱딱이 패들에게 배워 양주에 정착시킨 것이라하여 그는 양주 최초의 가면제 작가라고도 한다. 초피알-단오-추석에 주로 연회가 되었고, 그밖에 명절이나 기우제때도 연출되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북으로 이전을 하거나 축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10km정도 북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러한 위기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적이긴 하지만 동물약품 시장의 축소, 선진 각국의 통상압력으로 축산물 가격하락, 경제불황으로 소비위축 그로인한 축산물 소비감소 등이 사업하는 저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상황이 업계에 얼마나 심각한 지를 반영해 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동산기축약품의 주춧돌이며 오랜 영업적 파트너인 이건우 상무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지역 업계에서는 베테랑으로 통하는 프로로서 지역 양축가들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수익 창출의 이정표 역할을 충분히 해내리라고 기대한다. (주)